

## 열네 번째 제주소피아의 편집을 끝내며

09학번 강 지 승

이렇게 열네 번째 제주소피아 '바람'의 편집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철학과에 입학했던 신입생 시절, 철학에 대해선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고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철학을 하는 사람은 턱수염이 수부룩하고 괴짜이며 철학이란 학문은 웬지 이상, 꿈만을 좇는 학문일 것이라고 저 혼자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철학에 대한 편견을 깨버리도록 도와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선배들이 만들었던 아홉 번째 제주소피아 'Why?'입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 '다 똑같은 사람이구나.' 느끼며 철학도에 대한 편견을 깬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윤용택 교수님이 가르치시던 『철학의 기초』라는 1학년 전공필수과목의 교재에서 나오는 한 문단,

“철학이란,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그것들은 전통, 관습, 유행, 제도 등일 수도 있고, 상식과 과학에서 받아들이는 지식일 수도 있으며, 이데올로기와 종교에서 말하는 신념일 수도 있다.)을 다시 한번 검토하는 작업이다.”

저는 이 글을 보고 철학이란 학문에 대해서 잠깐이나마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실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횡설수설이지만,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철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대중들의 철학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깨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시는 여러분도 졸업학우들의 주변의 얘기, 사회이슈를 주제로 정하고 쓴 논문과 교수님들의 글, 저희 재학생 학우들의 경험담 등을 보며 철학과 철학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걷어 내시길 바랍니다.

제주소피아를 만드는 동안 편집부를 지원해주신 학과장님을 비롯한 교수님들과 조교누나, 그리고 논문을 제공해주신 곧 예비 졸업학우님들, 그리고 후기를 제공해주신 후배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해주신만큼 제가 뭐 하나 제대로 대접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분과소개는 이번 제주소피아에서는 없애게 되었는데 질주와 에듀소피아의 역할을 이번 학기에 다시 정비하고 새로운 분과의 설치 여부를 확인해 내년에는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는 우리들 개개인의 마음속의 바람이 정말 바람처럼 뿜하니 사라져버려도 살아있는 한, 계절이 순환하듯 어떠한 다른 바람이 다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마음속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